

심응지(沈應之)의 여행록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 연구

김영진*

- I. 서론
- II.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의 저자에 대하여
- III. 심응지의 여행과 『운연과안록』의 내용
- IV. 『운연과안록』의 가치-결론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은 필사본 1책의 여행록으로 처음 발굴된 자료다. 저자 심응지(沈應之, 1792~1860)는 자가 명학(鳴鶴), 호가 묵소(默所)·동대노초(東臺老樵)다. 본문 첫 면 하단에 “默所翁 著”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박영원(朴永元, 1791~1854)의 여행시집 『연사록(燕槎錄)』을 통해 묵소(默所)가 심응지의 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응지는 1846년 사행에 동종(同宗)의 서장관 심희순(沈熙淳)의 반당(伴倘)으로 여행에 참여하였다. 심응지는 경기도 김포(金浦)의 약산(藥山)에 살았던 한미한 문사였다. 문집 등이 있었으나 본 여행록 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교유자로는 같은 청송심씨의 심능숙(沈能淑), 심희순, 심이택(沈履澤) 등과 박선성(朴善性)과의 친분이 확인된다.

『운연과안록』은 여정 순서대로 직접 견문한 사실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을 총 156칙으로 기록한 잡록 형식의 여행록이다. 일기체도 아니고, 소항목도 없이 짙막하게 칙(則)만 나누어 기술했다는 형식상의 독특성이 있다. 내용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레, 벽돌, 농기구 등 이용후생 관련 기록들과 성곽,

* 성균관대 한문학과 교수.

가옥, 의관 제도 등을 비롯한 청조의 각종 문화, 양상문(楊尙文)·상지(尙志) 형제, 이균(李鈞), 심형혜(沈亨惠), 장목(張穆), 풍지기(馮志沂), 조진조(趙振祚) 등과의 교류, 영국과 아편에 관한 정보, 민간의 동향에 대한 보고 등이다. 요동(遼東) 벌의 ‘계문연수(薊門煙樹)’를 묘사한 부분의 문학적 필치, 회화나무[槐]에 대한 면밀한 고증 역시 주목할 만하다. 『중봉집(重峰集)』·『백사집(白沙集)』·『동사록(東槎錄)』 등 다종의 선행 기록을 참조하기도 하였고 특히 『열하일기』에 대해서는 숙독(熟讀)의 흔적이 나타난다. 벗의 평가대로 ‘간략(簡)하면서 ‘신빙(信)’이 있는 연행(燕行)의 ‘역사 기록(史牒)’이라 평가할 만하다. 19세기의 수준 있는 연행록으로 자리매김 할 가치가 충분하다.

핵심어: 19세기 연행록,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 잡록 형식, 156칙, 심응지(沈應之)

1. 서론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¹⁾은 필사본 1책의 연행록으로 처음 발굴된 자료다.²⁾ 저자는 심응지(沈應之, 1792~1860)로, 1846년 서장관 심희순(沈熙淳)의 반당(伴尙)으로 연행에 참여하였다. 심응지는 경기도 김포(金浦)의 약산(藥山)에 살았던 한미한 문사였다. 문집 등이 있었다고 하나 본 연행록 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교류로는 같은 청송심씨의 심능숙(沈能淑), 심희순, 심이택(沈履澤), 심의복(沈宜復) 등이 보이고, 역시 한미한 문사였던 박선성(朴善性)과의 친분이 확인되는 정도이다.

1) 표제 및 내제(권수제)가 ‘운연과안록’이고 책 말미에 붙은 저자의 자서에는 서명이 ‘薊門行卷’으로 되어 있다. 필자는 일단 ‘계문행권’이 저술 직후의 첫 이름이고, 최종 변경 확정된 서명이 ‘운연과안록’이라고 판단해서 후자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한다.

2) 책에 찍힌 국립중앙도서관의 등록 인이 “1979.8.30.”인 것으로 보아 그 직전에 입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운연과안록』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화상이미지로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책 앞뒤 날개의 한시 두 수와 발문은 탑재가 누락되었다. 이 연행록은 학계에 알려진 바 없다가 필자의 제공으로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운연과안록』은 여정 순서대로 직접 견문한 사실과 그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을 총 156칙으로 기록한 잡록 형식의 연행록이다. 일기체도 아니고, 소항목도 없이 짙막하게 칙(則)만 나누어 기술했다는 형식상의 독특성이 있다. 내용상으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수레, 벽돌, 농기구 등 이용후생 관련 기록들과 성곽, 가옥, 의관 제도 등을 비롯한 청조의 각종 문화, 양상문(楊尙文)·상지(尙志) 형제, 이균(李鈞), 심형혜(沈亨惠), 장목(張穆), 풍지기(馮志沂), 조진조(趙振祚) 등과의 교유, 영국과 아편에 관한 정보, 민간의 동향에 대한 보고 등 중요한 사실들을 담고 있다. 요동(遼東) 벌의 ‘계문연수(薊門煙樹)’를 묘사한 부분(제33칙), 회화나무[槐]에 대한 면밀한 고증(제151칙)³⁾ 역시 주목할 만하다. 『중봉집(重峰集)』·『백사집(白沙集)』·『동사록(東槎錄)』·『노가재집(老稼齋集)』·『열하일기(熱河日記)』·『북학의(北學議)』·『창랑선생시집(滄浪先生詩集)』 등 다종의 선행 기록을 인용하기도 하였고 특히 『열하일기』에 대해서는 숙독(熟讀)의 흔적이 나타난다. 말미에는 저자의 자서인 「계문행권서(薊門行卷敘)」(1847년)와 벗 경형병우(鏡衡病友)가 쓴 「제운연과안록후(題雲煙過眼錄後)」(1850년)가 실려 있다. 「제운연과안록후」에서는 『운연과안록』이 오로지 실재를 소상히 기록하는 데 힘썼으니 진실로 연행의 ‘사첩(史牒: 역사 기록)’이라고 고평하였다.

본고에서는 작자인 심응지의 가계를 살펴보고, 『운연과안록』의 형태상 특징, 내용상 가치를 중심으로 19세기 전반(前半)의 의미 있는 연행록으로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3)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51칙, 朴主簿善性聰明該洽, 多識於虫魚草木之名. 嘗謂余曰: “我東槐有二種, 而冒一名. 六月開花, 色黃宜染者, 曰槐, 韻書音灰; 皮理白而木心赤, 葉嫩可茹者, 亦曰槐, 不見於韻書, 而村學秀才, 承謬襲譌, 冒稱爲槐, 先生知此爲何名?” 曰: “余亦疑, 而不知也.” 曰: “樞楠豫章, 木之良材, 是當爲楠樹矣.” 余歷舉楠樹故實數事, 而明其不然. 朴堅守前說, 遂不決而罷. 後閱『滄浪集』, 有『送秋灘赴燕求槐子詩』(成文濬『滄浪先生詩集』 권2 『送吳汝益赴燕京』 제3수-필자), 自註曰: “榆有三種, 曰刺榆凡榆莢榆, 唐人謂猜梅爲刺榆, 用於石灰; 所謂婁台者凡榆也; 莢榆則着莢如錢, 成材最疾, 十年中軸. 蓋古詩多連用榆柳字, 則是村巷所種榆爲婁台無疑矣.” 余於是行, 過湯河淵, 古槐臨渚. 余詢其名於土人, 曰: “榆木也.” 余躍然而喜, 尤信滄浪之說矣. 芑老(박선성의 호-필자)亦嘗過湯河, 而未見此樹耶? 抑見之而不及問耶? 欲以滄浪說及北土所見, 證於芑老, 而九原難作, 爲之歎息. 因爲說以辨槐.”

II.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의 저자에 대하여

『운연과안록』의 저자 심응지(沈應之)는 자가 명학(鳴鶴), 호가 묵소(默所)·동대노초(東臺)老樵다. 『운연과안록』 본문 첫 면 하단에 ‘默所翁 著’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박영원(朴永元, 1791~1854)의 여행시집 『연사록(燕槎錄)』을 통해 묵소(默所)가 심응지의 호임을 확인할 수 있다.⁵⁾ 박영원은 1846년 진하 겸 사은 사행의 정사이고 부사는 조형복(趙亨復)이며, 심응지는 이때 동종(同宗)인 서장관 심희순(沈熙淳, 1819~1864)의 반당으로 연행에 참여하였다.

『청송심씨세보』(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의 곡산공파에서 ‘沈應之’의 가계를 확인했다. 그런데 2000년에 간행된 『청송심씨대동세보』에는 어찌된 일인지 이름이 ‘獻之’로 올라있고,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더 있었다.

“正祖 壬子(1792)生, 庚申(1860) 12월 9일 卒. 經學과 才行으로 세상의 추종을 받음. 『螘丸藁』 2권과 『疑禮輯略』 1권이 세상에 전해짐. 墓는 守安山 烽臺 동쪽 艮坐. 族孫 熙淳이 行狀을 찬하였고 族孫 判書 履澤이 묘지명을 撰하였다.”⁶⁾

동행했던 서장관 심희순이 쓴 심응지의 행장과 심이택이 쓴 묘지명이 있다고 하나 발견되지 않았다. 심응지의 부친 심집(沈鍊)의 묘지명도 소남(小楠)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이 찬했다 하나 그의 문집에는 실려 있지 않다.⁷⁾ 아쉽지만 족보만을 중심으로 가계를 기술한다.

심응지는 조선 개국 초 영의정을 지낸 심온(沈溫, 1375~1418)의 후손이다. 심온의 아들 심희(沈澮, 1418~1493)⁸⁾도 영의정에 오른 인물이고, 딸은

4) 김포 **수안산 동쪽 봉수대** 인근에 거주하여 불인 자호이다.

5) 朴永元, 『燕槎錄』, 「高橋堡止宿, 用沈大雅應之韻, 賦成送寄」, 「次沈大雅寄贈韻」, 「次沈默所寄贈韻(默所, 應之號)」, 「宿大方身, 是日三价一行滯水, 止歇神農店, 翌朝始到, 和沈默所寄示韻」, 「又以一律寄沈默所」.

6) “正祖壬子生, 庚申十二月九日卒. 經學、才行爲世推重. 有『螘丸藁』二卷、『疑禮輯略』一卷行于世. 墓守安山烽臺東艮坐. 族孫熙淳撰行狀, 族孫判書履澤撰誌.”

7) 심능숙의 서울 집은 남산에 있었지만 향저는 김포에 있었다.

8) 부친 심온은 영의정에까지 올랐으나, 1418년 명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던 중 태종을 비난한 사건에 관련되어 의주에서 체포, 사사되었다. 이 때문에 심희는 등용되지 못하다가 세종 말년에 아버지가 신원되자, 문종이 즉위한 뒤 등용되었다. 동지돈녕부사, 지충추원사, 공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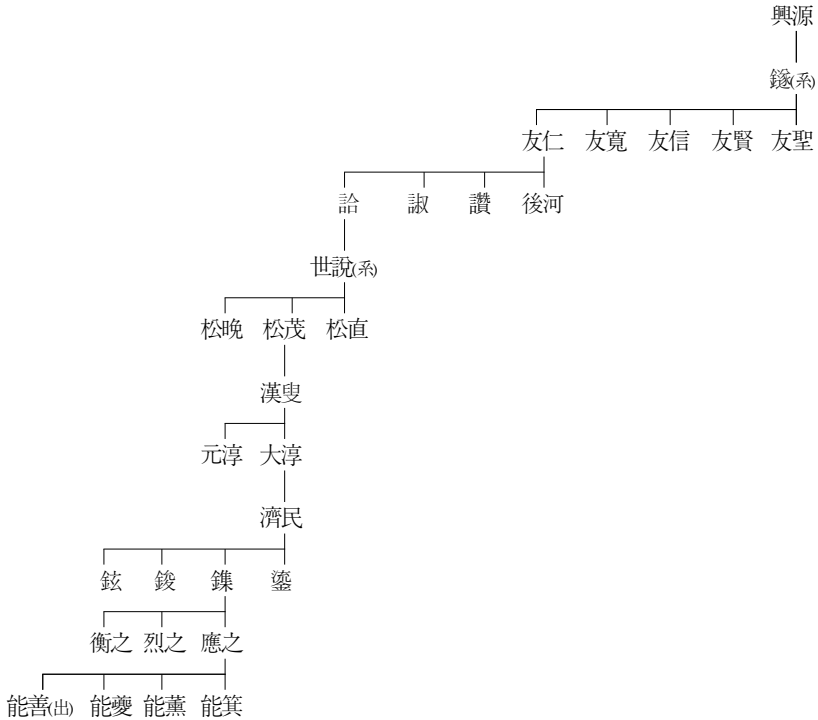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심희의 차남 한(瀚)과 그 아들 순경(順徑)⁹⁾은 무과(武科)로 발신(發身)했다. 심순경의 차남 흥원(興源)¹⁰⁾은 딸(남편은 孤山 黃耆老) 하나를 두어 수(鏞, 1522~1580)¹¹⁾를 양자로 들였다. 수는 아들 다섯을 두었는데 3남 우신(友信, 1544~1593)이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하다 순국하여 선무원종(宣武原從)에 녹훈되었다(동서 분당의 핵심인물 沈義謙은 그의 6촌이다). 수(鏞)와 다섯 아들대로부터 선산(先山)이 경기도 김포 통진 일대(특히 藥山)에 조성된 것으로 보아 거주지 역시 이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¹²⁾ 수의 5남 우인(友仁, 1549~1611)은 아들 넷을 두었는데 4남 합(誥, 1593~1674, 포천현감, 묘 약산)이 아들이 없어 세설(世說)을 양자로 들였다. 세설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차남 송무(松茂, 1635~1670)가 곧 심응지의 5대조다.

심응지의 집안은 4대조 한수(漢叟, 1662~1734) 등으로부터 주로 무관직(武官職)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거주지는 줄곧 김포의 약산(藥山)이었다. 심응지의 조부 제민(濟民, 1713~1784, 配 청주한씨)은 별다른 이력이 보이지 않는다. 제민은 4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류(鑾, 1738~1760), 집(鏞, 1744~1824), 전(錢, 1746~1797), 현(鉉, 1756~1815)이다. 류는 요절하여 전의 아들 익지(翼之, 1767~1782)¹³⁾를 양자로 들였다. 집은 초취 안동 권씨(1742~1783)와의 사이에 2녀¹⁴⁾를, 재취 반남박씨(1762~1819)와의 사이에 3남 4녀를 두었다. 응지(應之)는 바로 그의 장남이다. 심응지는 파평

판서, 관한성부사, 안주선위사, 관중추원사, 영중추원사, 형조판서, 경기도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좌의정, 영의정에 올랐다. 1468년 南怡의 옥사를 처리하여 翊戴功臣 2등에 책봉되고 靑城君에 봉해졌다. 1473년엔 盡忠夾輔의 공으로 佐理功臣 2등에 책봉되고 靑松府院君에 봉해졌다. 그 뒤 성종의 신임을 받아 국가의 대소 정사에 참여했고, 1491년 几杖이 하사되었다. 1504년 갑자사화 때 연산군의 모친인 尹妃의 폐출 사건에 동조했다는 죄로 관직이 추탈되고 剖棺斬屍 당했으나, 뒤에 신원되었다. 시호는 恭肅이다.

- 9) 심순경의 配는 申仲舟의 女, 신도비명은 성세장이 찬했다. 묘소는 파주 柴谷. 장남 希源(금산군수)의 묘갈은 윤춘년이 찬했다. 희원의 매제는 龍門 趙昱이다.
- 10) 進士가 되었고 묘는 파주 牛浪洞에 있다.
- 11) 곡산군수를 지냈고 묘는 通津 鶴峴에 있다.
- 12) 심수의 장남 後河의 묘는 김포 蘆長面 霧峰에 있다.
- 13) 심익지의 아들 能幹은 趙在心(본관 임천)의 딸을 아내로 맞았는데 조재심은 司諫 趙昌期の 5대손이다.
- 14) 심집의 사위는 南宮輅, 安景殷이다. 남궁관(부친 南宮愿이 1786년 進士)은 거주지가 강화이고, 안경은(부친은 安鼎彬)도 본관이 廣州로 경기도에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된다(安鼎福-安景曾 父子와 같은 항렬이다).

[표 1] 심응지 가계도



윤씨(1788~1834)와의 사이에 4남 1녀(能箕, 能薰, 能夔, 能善, 사위全州李寅五)를 두었다. 가계도는 위의 [표 1]과 같다.

심응지의 교류를 살펴보면, 1846년 연행의 동행자¹⁵⁾인 운초(雲樵, 진사 金以玟¹⁶⁾으로 추정됨), 화산(華山, 진사 趙升教로 추정됨¹⁷⁾), 채동식(蔡東

15) 박영원의 『연행일록』에 제시된 동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上使軍官前五衛洪頤喆、前郎廳李龜亨、前別提金大顯、副使軍官進士趙升教、前郎廳韓道燦、前主簿卞夏圭、書狀軍官出身沈興奎、上房伴尙幼學蔡東植、副房伴尙幼學李時善、書狀伴尙幼學沈應之、進士金以玟、監生邊應翼(應翼, 首譯之子也), (중략) 一堂上邊植, 二堂上金驛男, 三堂上方重叔, 漢學上通事金性翼、兼副房乾糧官淸學上通事金時業、公幹正文文周, 兼上房乾糧官掌務官李容肅, 一從事官趙基駿, 二從事官崔燾, 侍表官金榮, 書員崔垣.”

16) 김이문은 개성 출신의 문사로 심상규의 가문에 식객으로 있으면서 심희순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다(박영원의 『연사록』 주석 참조).

17) 조승교는 부사 조형복의 장남으로 字는 景猷다. 거주지가 수원이기에 혹 華山이란 호를 쓰

植, 정사의 반당, 호 友蓮), 역관 이용숙(李容肅)¹⁸⁾과 김문주(金文周), 의주 통사 장종주(張宗周)와, 『운연과안록』 제후(題後)를 쓴 경형병우(鏡衡病友, 성명 미상), 동종(同宗) 심의복(沈宜復)¹⁹⁾, 그리고 『운연과안록』에 언급한 박선성(朴善性, 벼슬은 主簿)²⁰⁾ 정도가 파악된다.

우선 심응지를 수행원으로 데려간 서장관 동암(桐庵) 심희순이 주목된다. 심희순은 규장각 직제학 등을 지내고 중국통으로 정조(正祖)에게 지우를 받았던 심엄조(沈念祖)의 증손자이며 영의정 심상규(沈象奎)의 손자다. 그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와도 상당히 친한 사이였다.²¹⁾ 한편 심응지의 8대조 심우인(沈友仁)의 표석을 교교재(嘯嘯齋) 김용겸(金用謙)이 쓴 것이나, 심응지의 부친 심집의 묘지명을 심능숙이 찬한 것, 그리고 『운연과안록』에 『열하일기』가 꽤 많이 인용된 것 등에서 심응지 집안이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의 교유권과도 일정한 관계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II. 심응지의 연행과 『운연과안록』의 내용

심응지는 55세 때인 1846년 4월 3일 압록강을 건넜고 5월 3일 북경에 들어왔으며, 5월 29일 북경을 떠났다. “북경에 머문 것이 27일, 총 도정은 2,160리, 총 일정은 64일, 참여한 사람은 204명, 말 80여 필이었다”고 스스

지 않았나 추정해본다.

- 18) 이용숙은 역관 이상직의 제자로 문화사,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그의 시 약간 수가 『해객시초(海客詩鈔)』(역관 6인의 시선집)에 실려 있다.
- 19) 1788~1863. 음력으로 창녕, 순창, 장성, 밀양, 나주, 강릉, 여주 등 여러 고을 원을 지냈다. 김조순의 처남. 문집으로 『창북유고(滄北遺稿)』(필사본 2권1책, 오사카부립도서관)가 있는데 여기에 『與鳴鶴宗氏共賦』(7율), 『默所宗丈穿雪叩扉, 欣然相接, 飲數盃』(7율 1수, 5율 1수), 『梅花聯句』, 『次默所韻』(5율), 『默所將別次農巖韻敘懷』(5율) 등 심응지 관련 시가 보인다.
- 20) 박선성(호 茨山, 본관 무안)은 한미한 출신이나 문학에 능해서 1813년을 비롯하여 두 차례 중국 사행에 따라갔다. 심상규, 함진승 이상적, 현일 등과 교분이 깊었다. 역관 朴迪性(호 淸珊)은 그의 집안 아우다. 시문 일부가 『화동창수집(華東唱酬集)』(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에 들어 있고, 시화집 『자산차록(茨山箚錄)』이 별도로 전한다.
- 21) 심상규와 추사는 가까운 사이였다가 이후 정치적 입장 차이로 인해 서로를 탄핵하였다. 그럼에도 추사는 심희순을 예제자로 여겨 그에게 서법을 연마할 것을 주문하였고 심희순의 글씨를 매우 칭찬하였다. 『완당전집(阮堂全集)』 권4에는 추사가 북경에 유배 갔던 시절까지 심희순에게 보낸 편지가 30통 실려 있다.

로 적었다.

족보에 심응지의 저서로 『낭환고(娘丸藁)』 2권과 『의례집략(疑禮輯略)』 1권이 있다고 적혀있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운연과안록』의 앞뒤 날개에 적힌 두 수(『灣館送春』, 『百祥樓』)의 시는 연행 도정 중 의주에서 지은 심응지 본인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심응지는 연행 왕환(往還)에 줄곧 시를 지었고 이에 차운한 정사 박영원의 작품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연행시권』이 별도로 있었을 개연성이 높지만 현재로서는 이 두 수의 시만이 확인되고 있다.

평양의 아름다움 사람을 기쁘게 하고	箕城佳麗解娛人,
살수의 누대는 여러 번 눈으로 보았지	薩水樓臺過眼頻
십년간 용고기의 훌륭한 맛아 말로만 떠들다가	十載坐譚龍肉美,
삼춘에 말발굽 먼지를 보내누나	三春斷送馬蹄塵。
추운 지역이라 복사꽃 오얏꽃 늘 늦게 피고	地寒桃李開常晚。
비에 젖은 구름과 이내 적적히 아침 더디네	雨濕雲煙寂不晨。
빨리 일어나 술 찾으며 이별의 뜻에 응수하니	亟起呼罇酬別意。
아녀자로 하여금 수건 적시게 할 것 없어라	枉教兒女一霑巾。

하늘 아득히 못 산 서북으로 비끼고	天際羣山西北橫,
올라 바라보니 비로소 나그네 수심이 생기누나	登臨始覺旅愁生。
장강(長江)에 해는 뉘엿 중국 가는 길	長江日落皇華路,
세류(細柳)에 봄 깊은 절도영(節度營)	細柳春深節度營。
창졸간의 해자는 외적 바라보던 곳이요	倉卒潢池曾玩寇,
태평시대에 조야에선 군사 얘기 적구나	升平朝埜少譚兵。
낮선 곳의 물색에 늙은 이 놀라니	殊方物色驚遲昏,
호드기 소리 변새에 울려퍼짐에 슬프구나	悵悵梅笳出塞聲。

먼저 심응지 자신의 서문인 『계문행권서(薊門行卷敘)』를 읽어본다.

나는 젊었을 때 독서하는 것이 매우 거칠어서 겨우 대의(大義)만 알았을 뿐 더 이상 은미한 것을 연구하고 오묘한 것을 탐색하지 않은 채 대충 책을 마쳤기에 지금 늙어 백발이 되어서도 이론 바가 없어 이것이 회한이다.

작년 사절(使節)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가게 되어 압록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다. 무릇 산천, 성읍, 누대, 사찰, 마을을 만나면 이정(里程)이 적힌 옛 종이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간졸(趕卒)에게 물으니 간졸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말을 재촉해서 가보시지요.”라 한다. 해질녘에 세거(稅車: 看車의)에게 불을 가져오라 해서 지나온 곳을 기록하려는데 연토(燕土)의 모래 바람에 눈에 티가 들어 밝음을 빼앗아가 한만(閒漫)한 문필을 할 수가 없었다. 게을러지면 또 멈추었다. 오늘도 이 같고 내일도 또 이 같고, 5개월을 왕복하면서 기록한 행권(行卷)이 간단하여 한 끼 밥 먹을 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귀국하자 일찍이 객으로 얼굴이 익은 자들이 앞에 모여들었다. 오랜 헤어짐을 얘기하고 노고를 위로한 뒤 연도(沿途)의 구경한 것을 대충 물었다. 나는 행장을 뒤져 그 기록한 것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 산천에 있어서는 기주(冀州)의 태항(太行), 유주(幽州)의 무려(巫閭), 요하(遼河), 계하(薊河)가 모두 여기에 실려 있었으나 향배(向背)와 내력이 상세하지 못하고, 그 성읍에 있어서는 심양(瀋陽), 광녕(廣寧), 옥진(玉田), 풍윤(豐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으나 그 험이(險夷)와 변성이 상세하지 못하고, 누대와 사찰에 있어서도 대략 모두 이와 같았다. 보는 이들이 크게 웃었고 어떤 이는 땅에 내던지며 기롱과 욕을 하기를,

“우리나라가 비록 동쪽 끝에 있어 함하(函夏)로부터 만 리나 멀리 떨어져있긴 해도 연도(燕都)만은 가장 가깝다. 황각(黃閣: 궁궐-여기선 명나라를 의미)이 이미 불살라진 뒤로 천지가 누린내가 나게 되어 언어와 의복이 섞여 통할 수 없게 되고, 관새(關塞)의 기찰과 적발로 출입을 금(禁)함이 심하여 비록 활보하기를 대장(大章)과 수해(豎亥)처럼 하고 영특하기가 사마천(司馬遷) 같을지라도 마지수(馬訾水) 압록강 서쪽 지역은 한 발자국도 엿볼 수가 없으니 해마다 있는 폐백을 가지고 가는 사행에 옥(玉)을 닦고 풍속을 살피는 것은 오직 행인(行人: 사신)만이 그럴 수 있다. 역관처럼 명(命)을 전달하고, 막부(幕府)로 분주히 다니는 것은 또한 포의(布衣)의 직분이 아니니,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 행차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는 또한 드물다. 지금 그대가 마침 사행에 끼게 되어 밝은 땅이 천리에 두루 펼쳐져 있으니 요양(遼陽)을 바라보며 정령위(丁令威)의 신선 자취를 생각했을 터이고, 고죽국(孤竹國)을 지나면서 묵태씨(墨胎氏)의 유상(遺像)에 조문했을 것이다. 역수(易水)의 도도함에 찬바람은 아직 있을 터요, 장성(長城)이 만 리에 이어짐에 무너진 성가퀴는 잇몸 같을 것이니, 감개(感慨)가 넘치는 나머지에 붓을 들고 기록했으면 백 장의 종이가 가득 찼을 것이다. 또한 그대는 일찍이 옛 서적을 읽은 자가 아니더냐? 기재(紀載)의 법은 작은 바늘로 실을 한 땀 한 땀 꿰매는 것 같아서 한 터럭도 유감이 없어야 하거늘 어찌 이렇게 설렁설렁 기록해

서 대체 무엇을 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두려워하며 사죄하기를,

“나는 본디 거칠음이 병폐인 자외다. 현위(弦韋)에 대한 경계(조급증을 경계하고 또 일정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인용자)를 오래 지니고 있었으나 일(事)과 경(境)에 맞닥뜨려 금세 또 그 병폐가 나타나 산천대지를 봄에 또 책을 대충 보던 것처럼 하게 되었소. 그러니 이 책의 소루(疎漏)함은 이상할 것이 없소. 그러나 ‘명산(名山)에 노닐 때는 남김없이 다 보지 않는 것이요, 미인(美人)을 보는 것은 반쯤 가려진 모습을 본다하지 않았소? 옛 사람도 대부분 그림자 보는 것만으로 풀이를 하지 않았소? 초가집 처마에 활짝 갠 대낮에 자다 일어나 책을 펼쳐 한두 책을 보면 그래도 베개 밑에서 부질없는 꿈이나 꾸는 것보단 낫지 않겠소?”

객이 “그렇겠구려.” 하고 일어났다. 드디어 책에 이와 같이 쓴다. 동대노초(東臺老樵)는 제(題)하다.22)

상당히 겸손한 자세의 저자 서문이다. 주도면밀하지 못한 성격 탓에 이 제까지의 독서도 대충이었고, 따라서 북경 견문과 그에 대한 기록도 평소 습성대로 대충밖에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어찌 보면 『운연과안록』이 ‘칙(則)’별로 된 짤막짤막한 형식을 취한 것은 저자의 이런 습성에 기인한 결과물로서의 독특한 스타일일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든다. 심옹지가 위 서문을 귀국 이듬해에 쓴 것을 보면 『운연과안록』의 최종 정리는 1847년에 이

22) 심옹지, 『운연과안록』, 『薊門行卷敘』, “余少時讀書甚粗, 纔見大義, 不復研微蹟奧, 卒卒了卷, 至今老白首, 而學無所成, 以是悔恨焉. 去年隨使節入燕, 渡鴨江而西, 凡遇山川、城邑、樓臺、寺刹、閭落, 輒閱喉子古紙, 舉以質之於趕卒, 趕卒曰: ‘然則促鞭以過’ 至暮, 稅車呼燭而識其地, 燕土風沙, 眼眯奪晶, 不能作閒漫字, 又懶又頓, 今日如是, 明日亦如是. 涉五旬朔而往還, 行卷簡短, 不過一呷問可了. 既歸, 所嘗客習於余者, 壘集於前, 鉞離閭, 慰勞苦, 率問沿途所見. 余搜囊中, 出其書以示之, 其於山川, 則冀之太行、幽之巫閭、遼河、薊河, 皆載於卷, 而不詳其向背由歷. 其於城邑, 則瀋陽、廣寧、玉田、豐潤, 鱗鱗相次, 而不詳其險夷繁庶. 至於樓臺、寺刹, 大略皆然. 覽者大笑. 或抵擲於地, 至加譏詈曰: ‘我國僻在東表, 去函夏万里而遙, 唯燕都最近, 而黃閣既燼, 天地腥羶, 言語衣服, 固無以裸然相通, 關譏塞隴, 峻出入之禁, 雖闊步如大章堅玄、英奇如司馬遷, 卽馬訾以西, 一足不可窺, 歲時幣幣之行, 拭玉觀風, 惟行人爲然, 而傳命於寄象, 轟走於幕府, 又非韋布之所職, 則東土之爲此行者, 蓋亦鮮矣. 今子適廁於行李, 足跡所履, 迨遍於數千里之間, 望遼陽而念丁令威之仙跡, 過孤竹而弔墨胎氏之遺像, 易水滔滔, 寒風尚在, 長城万里, 圯堞如巖, 淋漓感慨之餘, 援筆而爲記, 則百紙可盈, 且子不嘗讀古書乎? 紀載之法, 細針密線, 毫髮無遺憾, 而乃草草如是, 尙何以觀爲?’ 余瞿然而謝曰: ‘吾困病於粗者, 尋常弦韋之戒爲日雖久, 而卽事卽境, 驀然帶出, 看大地山川, 亦如看書, 是卷之疎漏, 固無足怪也. 然遊名山以不盡, 睇美人以半遮, 古人多以觀影作解, 茅櫛晴晝, 睡起展卷, 觀一半則, 則不猶逾於邯鄲之一枕也歟.’ 客唯唯而起, 遂書于卷, 東臺老樵題.”

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3년 뒤에 벗 경형병우(鏡衡病友)는 이 책을 읽고 「제운연과안록후(題雲煙過眼錄後)」를 남겼는데 『운연과안록』의 장점들을 잘 추출하여 고평하였다. 핵심 대목만 살펴본다.

(전략) 나의 벗 목소 사종(默所詞宗) 심자(沈子) 명학(鳴鶴)이 (중략) 지난해 사절(使節)을 따라 연경(燕京)에 들어가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황성(皇城)에 이르기까지 무릇 산천의 장려(壯麗), 도로의 원근, 풍속의 연혁, 성곽의 방비 및 건물의 제도, 거마의 명에 맴과 말 몰이, 씨 뿌리고 기름의 적절함, 입고 먹음의 수요에 이르기까지 기록하지 않음이 없고, 창려(昌黎)의 문필봉(文筆峰), 북평(北平)의 사호석(射虎石), 청성(淸聖)의 고죽묘(孤竹廟), 문산(文山)의 시시사(柴市祠) (중략) 석고(石鼓), 석경(石經), 이정(彝鼎), 준작(尊爵)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두 고인의 남긴 자취이니, 소상히 그 실재를 기록하고 모두 합쳐 ‘운연과안록(雲煙過眼錄)’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미미한 것을 다루고 많음을 떠벌리며 괴탄함을 말하는 것으로 일을 삼지 않고, 오직 실재를 좇는 것을 힘썼으니 실로 연행(燕行)의 한 부의 역사 기록이다.²³⁾

『운연과안록』의 제1칙부터 제5칙까지는 일종의 서문(序文)과 범례(凡例)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연경에서의 기이한 일을 몰았더니 말하기를, “황제가 옥(玉)으로 만든 신발을 신고, 밤송이가 한 아름이나 될 만큼 크다.”고 하였는데, 듣는 이가 진실로 그렇다고 여겼다. 초(楚)나라는 강한(江漢)의 가에 있고 그 편 폭이 5000리가 되며, 춘신군(春申君)의 상객(上客)은 구슬 신발을 신은 채 알현하였다. 태화산(太華山)의 연꽃은 그 크기가 배(船)만 하고, 장원(莊園)의 표주박(瓠)은 텅 빈 것이 다섯 섬들이 만큼이다. 저 두 가지 이야기는 진실로 괴이할 것이 없거니와 실제로 농담일 뿐이다. 연경 가는 길에서 붓을 잡아 우스갯소리의 바

23) 鏡衡病友, 『題雲煙過眼錄後』, “(전략) 吾友默所詞宗沈子鳴鶴, 不遇於時, 慷慨落拓, 而耳目之所及者, 止於海左之編壤耳。乃於去年隨使節入燕京, 肇自越江, 達於皇城, 凡山川之壯麗, 道路之近遠, 風俗之沿革, 城郭之控衛, 暨夫屋宇制度, 車馬駕馭, 種養所宜, 衣食所需, 靡不載錄。至於昌黎之文峰, 北平之射石, 淸聖孤竹之廟, 文山柴市之祠, 華表柱之仙蹤也, 黃金臺之夕照也, 太子河逃身之所, 滹沱河濟危之地, 及石鼓·石經·彝鼎·尊爵之形制, 皆爲古人之留蹟, 則昭詳志實, 合而名之, 曰‘雲煙過眼錄’。盖不以關聯誇多說誕談怪爲事, 而惟務從實, 信燕行之一部史牒也。(후략)”

탕을 만드는 데 힘쓰고 허황된 말을 떠벌린다면 옥 신발(玉鞮)과 밤 껍질(栗殼)로 귀결되는 데 거의 가깝지 않을 것이 드물 것이다. 그러나 차라리 간략하지만 정 진실하여 사가(史家)의 체(體)를 보존하는 것이 낫다.²⁴⁾

본 바가 적으면 괴이한 바가 많다. 낙타를 보고 말의 등에 종기가 난 것이라 여기는 꼴이다. 청나라는 진실로 큰 나라라서 본 바가 퀘괴(詭怪)한 것이 매우 많다. 눈으로 본 자도 이미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데 보지도 못한 다른 이가 믿어 주길 바라는 것은 망령된 짓이다. 애오라지 이 글로 옳기어 볼 자를 기다린다.²⁵⁾

유관(游觀)에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 화사(畫師)가 그 하나이고, 감여(堪輿)가 그 하나이고, 선서(善書)가 그 하나이다. 누대의 빼어난 경치, 산수의 아름다움 등 특수한 형상 괴기한 모습을 만나면 그려야 한다. 긴 강의 망망함, 어지러운 산의 중첩함을 만나면 반드시 그 맥락(脈絡)과 선파(旋派)를 살펴야 한다. 기록할 만한 것이 있으면 써야 하니 이를 그만두면 하나의 몽경(夢境)일 뿐이다. 종소문(宗少文)은 그 만년에야 깨달은 자일 것이다! 내가 이에 남은 한(恨)이 있다.²⁶⁾

국초(國初)에는 연경 가는 인원에게 예(例)대로 은화(銀貨)를 주어 노잣돈이나 교역하는 재물로 쓰게 하였다. 선덕(宣德·明 宣宗의 연호, 1426~35년) 연간에는 금은(金銀)이 본국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공(免貢)을 주청(奏請)하였다. 그리고 인삼으로 대신하여 한 사람당 10근을 주었는데 그 후 점점 많아져 한 사람당 각각 80근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팔포(八包)’이다. 근래에는 관포잠상(官包潛商)이 해마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인삼을 들여가므로 의주(義州)에서 수색하지만 범망이 헤이해져서 몰래 넘어가는 것을 허락해주고 세금을 대략 거두니 세상에서 ‘합안전(闔眼錢)’(눈 감아주는 돈)이라 일컫는다. 변방의 방어가 이때부터 무너졌으므로 식견 있는 자들이 이를 근심한다.²⁷⁾

24)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칙, “昔東人徵異事於燕, 曰皇帝着玉鞮, 栗殼大盈抱. 聞者以爲信然. 夫楚國濱江漢, 幅員直五千里, 而春申君上客以珠履見, 太華之藟, 其大如船, 莊園之瓠, 枵然五石, 則彼二說者, 固無足怪, 而其實戲爾. 執管於燕路, 務爲解頤之資, 張浮鼓誕, 則不幾近於玉鞮栗殼之歸者希矣. 寧簡而信, 以存史家之體爾.”

25)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2칙, “少所見, 多所怪, 見橐駝, 以爲馬廬背. 燕固大國, 所見殊多詭怪, 目之者, 已不能自信, 而冀他人之信於未見, 妄矣. 聊造此一轉語, 以俟覽者.”

26)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3칙, “游觀, 要有三個. 畫師一個, 堪輿一個, 善書一個. 遇樓臺勝絕, 山水佳麗, 殊形詭狀, 則畫之. 長河莽莽, 亂山堆疊, 則必審其脈絡旋派, 有可紀者, 則書之. 舍是, 則一夢境爾. 宗少文, 其晚覺者歟. 余於是乎有遺恨.”

27)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4칙, “國初, 赴京人員, 例賚銀貨, 以當盤費交易之資. 宣德中, 以金銀

쇄마(刷馬)와 복마(卜馬)는 모두 80여 필인데 운항(運餉)이나 해서(海西) 등의 창고에서 나누어 배치해 결정하여 보낸다. 근래의 예는 사행 주방에서 잘 헤아려 파발마로 넣고 그 나머지는 말의 값을 모두 노잣돈으로 계산하여 은으로 거두어 수레 빌리는 비용을 충당한다.²⁸⁾

한편 마지막의 제155칙과 제156칙 역시 연행록 전체로 보면 총결(總結) 세칙(細則)에 해당한다.

연경으로 가는 길의 넓고 화려함은 마땅히 세 가지 단계로 볼 수 있다. 처음 봉황성(鳳凰城)에 이르러서는 누대와 집이 장대하게 시야에 들어온다. 심양(瀋陽)은 사치하고 화려함이 더욱 심하고 기물이 다 갖추어져있어 봉황성에 비할 바가 아니다. 통주(通州)는 황성(皇城) 가까이를 두르고 있는데 사람과 수레의 왕래가 번화하고 땅과 바다가 끝이 없으며 붉고 푸른 누각이 이목을 현혹하니 또 하나의 연경이다.²⁹⁾

압록강을 건너 서남쪽으로 구련성(九連城)을 향해 책문(柵門)으로 들어간다. 책문에서 낭자산(狼子山)까지는 동팔참(東八站)인데 모두 산골짜기 사이로 간다. 냉정(冷井)에서 소흑산(小黑山)까지는 요야(遼野)이니 대략 4백여 리다. 요양성(遼陽城)에서 심양까지는 북동쪽[丑方]을 향해 가고, 심양에서 고가자(孤家子)까지는 서북쪽[戌方]을 향해 가며, 고가자에서 산해관(山海關)까지는 모두 남쪽[午方]과 남서쪽[未方] 사이를 향해 간다. 산해관에 들어가서 점차 서북쪽으로 향하면 연경에 다다른다. 거리는 모두 2,160리고 왕복 64일 여정이며, 인원은 모두 204명이고 말은 모두 80여 필이다.³⁰⁾

非本國所產，奏請免貢，代以人蔘，人資十斤，後漸濫觴，人各八十觔，此所謂八包也。近歲寅緣官包酒商，歲入太近十倍，灣府搜檢，法網解紐，因許冒越，略收其稅，世稱闊眼錢也。邊防自此蕩然，有識憂之。”

- 28)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5칙, “刷馬卜馬合八十餘疋，而自運餉、海西等庫，分排定送。近例使行廚房，量宜入把，其餘則並計馬價如盤纏，以銀子收俸，補雇車之需。”
- 29)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55칙, “燕路宏麗，當作三節看。始至鳳城，樓臺閭井，壯入瞻矚。瀋陽，則奢麗尤勝，措置備具，非鳳城比也。通州，則逼帶皇城，肩摩轂擊，塵海無際，朱樓翠閣，耳目回眩，一燕京也。”
- 30)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56칙, “渡鴨綠江，西南向九連城入柵門，由柵至狼子山，是東八站，皆從山谷間行。有冷井至小黑山，是遼野，大略四百餘里。由遼城至瀋陽，向丑方行，有瀋陽至孤家子，向戌方行，有孤家子，至山海關，皆向午未間行。入關則稍向西北抵京，計程二千一百六十里，往還合六十四日，人共二百四名，馬共八十餘疋。”

본문의 실질적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제6칙에는 중국 방향으로 압록강을 건너면서 누군가가 지은 시구(詩句)를 인용하였는데, 본문의 실질적 끝이라 할 제154칙에도 역시 귀국길 도강(渡江)을 앞둔 누군가의 시구를 인용하며 마무리함으로써 책 전체의 수미호응(首尾呼應)을 갖추었다.³¹⁾ 이후의 모든 칙은 여정 및 일정 순으로 특기할 만한 것들을 순차대로 기록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체 내용 제요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칙	내용제요	비고
1	우언을 들어 자신의 연행 기록이 차라리 簡하면서 신빙성 있게 史家の 體를 갖추겠다고 언명함.	
2	본 바가 적으면 괴이한 것도 많은 법이다. 중국이란 큰 나라에서 본 것이 詭怪로 지목 받을 것이 매우 많다. 이미 스스로를 믿을 수 없으면서 남이 믿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망령될 뿐이다. 오로지 이 한 부를 작성하여 볼 자를 기다리겠다.	
3	놀면서 구경하는 데는 세 가지가 필요하니 畫家, 堪輿家, 書家이다.	
4	赴京 人員의 盤費 交易 및친의 변천. 銀貨에서 人蔘(八包). 근세의 闔眼錢.	
5	刷馬, 卜馬가 도합 80여 필.	
6	압록강 건널. 누군가의 渡江詩 “一渡統軍亭下水, 羈懷應似復離家”의 造語가 精切함.	4월 3일
7	渡江時의 有情之情과 無情之情.	
8	구련성에서의 노천 점심이 마치 들밥[野飭]같음. 艱難羈旅의 근심.	
9	金山石의 지명 유래와 이곳에 은거한 康世爵 이야기. 강세작의 조부와 부친.	
10	湯池(濶井坪) 站軍들의 추위와 습기 제거, 잠자리 방법.	
11	압록강변부터 책문까지의 120리 땅은 生居하기 가장 좋은 땅인데 버려두고 거처하지 않음이 안타깝다.	
12	어떤 이가 말하는 압록강 서쪽 땅(고구려의 도읍)이 空地가 된 이유.	
13	湯站의 古城은 그 연대를 상고할 수 없으나 천년 이내에 지어진 것이 결코 아니니 고구려가 도읍한 곳이라는 설이 혹 그럴 듯하다.	
14	葱秀. 나라를 떠나 비슷함을 보는 느낌은 人物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충수란 이름은 명 사신 倪謙이 명명한 것인데 壁勢의 奇峭함은 대략 비슷하지만 妍媚함을 함축한 것은 平山의 충수가 더 뛰어난 듯하다.	

31)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6칙, “渡鴨綠江, 四月初三日也. 江源出白山, 南流繞塞, 至灣府, 而分爲三條, 西入于海. 嘗聞過江詩曰: ‘一渡統軍亭下水, 羈懷應似復離家.’ 因境生情, 造語精切, 憑軼朗詠, 爲之一獻”, 제154칙, “還至九連城, 新經霖雨, 三江爲一, 渺然滄海也. 是日天熱, 登江邊小岡納涼, 趕卒燃火爲信, 隔水見統軍亭巋然入眼, 不覺有喜意. ‘歸日九連城下路, 統軍亭似見吾家’, 未知何人所作, 而善形容北歸人情曲也.”

15	柵門의 형상과 鳳凰城將의 威儀.	
16	봉황산의 모습과 何氏 집 정원 구경.	
17	책문에 머물. 遼鳳의 車戶[看車的]들이 수레의 경쾌함을 자랑하여 제약을 맺기 위해 과시한다.	
18	關帝廟를 알현함.	
19	內柵으로 출발. 말을 두고 수레를 탐.	
20	중국의 車制를 상세히 묘사.	
21	세 낸 수레(所謂 ‘欄頭’)의 폐단.	
22	鳳凰城(內柵이라고도 함)의 大都會 면모.	
23	우리나라의 遠接使 역할을 하는 迎送官, 通官, 護行甲軍.	
24	松站 또는 薛劉站이란 이름의 어원.	
25	舊北河(三家河)는 八渡河의 제1曲임.	
26	草口河는 팔도하의 마지막임. ‘萬世流芳’이란 비석의 誕妄함.	
27	連山關(鴉鵲關)은 虎患이 많은 곳. 成化(1465-87년) 연간 貢路 변경을 주청했으나 중국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東槎錄』의 기록을 인용.	
28	會寧嶺 꼭대기에서의 조망.	
29	石門嶺. 이제 산이 끝나고 여기서부터 遼野 70리가 시작됨.	
30	遼野에서 關帝廟, 鼓樓, 廣祐寺 白塔을 구경.	
31	太子河.	
32	噴水寺(慈航寺)와 신요동(馬上城).	
33	薊門煙樹.	
34	渾河(耶里江). 강가에 효종이 納涼을 위한 작은 정자를 지었는데, 그 遺址가 있었으나 지금은 상고할 수 없다.	
35	瀋陽. 天啓 을축년(1625) 만주족이 建州로부터 들어와 이 성을 점거하고 奉天府로 개칭함. 太學, 朝鮮館, 심양의 佳味, 술집.	
36	願堂寺.	4월 13일
37	老邊城. 店壁에 적힌 3수의 시.	
38	孤家子 店壁의 慨世의 題.	
39	一板門. 醫巫呂山(『周禮』, 『遼史』 인용).	
40	舊家舖 서쪽부터 遼野가 다하고 비로소 煙臺가 나타나기 시작함. 5리 혹은 10리 간격으로 산해관까지 이어짐.	
41	廣寧. 雙塔寺.	
42	北鎮廟. 건물 뒤 層巖(좌측엔 ‘翠雲屏’, 우측엔 ‘補天石’이 새겨져 있음)에는 題詠이 많은데 三韓 金鼎의 시 또한 있었다.	

43	桃花洞. 廣室 바위 꼭대기에 ‘天然幽谷’ 大字가 새겨져 있는데 100여 명은 수용할 수 있다. 역관 이용숙이 장대에 붓을 매어 나를 위해 바위에 題名함. 聖水盆, 觀音閣 구경. 해질녘까지 飲酒.	
44	閭陽驛에서 잠. 무량옥 등 건물 구조 상세히 묘사.	
45	石山站.	
46	塔山. 渤海, 嗚呼島.	
47	錦州 경계에 들어섬. 길가에 礮房이 있고 수레 위에 대포 6문이 실려 있다. 영국의 노략질이 있을 후에 연해에는 礮房을 두어 예방한다고 한다.	
48	寧遠衛. 충병 祖承訓의 4세 牌樓.	
49	성의 서북쪽 10여 리에 長嶺이 있고 그 너머는 다 몽골 땅이다.	
50	覺華島. 천계 戊午년(1618)에 명이 遼陽을 뺏긴 후 우리나라 사신이 水路로 朝天하였는데 이 섬에 정박하였다. 근래 황해도 풍천 장연 해변에서 চে멧대로 고기 잡는 荒唐船은 대부분 각화도 거주자들이라고 한다.	
51	半拉店 시장의 벽돌처럼 찍어낸 듯한 海鹽 덩어리. 渤海 魚鹽의 훌륭한 품질을 체험함.	
52	姜女祠. 祠廟 기둥의 果親王(강희제 아들로 이름은 允禮)의 金字 對聯.	
53	山海關(『동사록』 인용).	
54	길가 藥舖 주인 곱씨로부터 그의 고향인 山西 太原의 關土, 風俗, 汾, 晉, 山川에 대해 들음.	
55	汾州 介休縣.	
56	道墓의 크기가 一畝임.	
57	綿山 절정에 抱佛巖이 있는데 송나라의 神僧이 여기서 입적. 지금까지 영험하다고 함.	
58	關內 20리 여에 9營 18寨를 두고 文官 武官이 말도록 함.	
59	關北 九門關의 蟠桃谷 복숭아.	
60	청나라의 節·孝 旌褒 방식과 뇌물이 횡행하는 근래의 병폐.	
61	望海亭과 礪石.	
62	『熱河日記』에 기록된 長城 밖 白雲塔 石龕의 遼나라 때의 入定僧 肉身과 저자의 誕妄함 비판.	
63	정사 반당 蔡東植(友蓮)과 角山寺 구경. 각산의 지리적 위치.	
64	곽씨의 말이 십 수 년 전엔 각산 정상에 松柏이 울창했고 遊인들이 매우 많았다고 함. 산 정상에 神井. 嘉慶帝가 東巡할 때 다리를 놓느라 지금처럼 민둥산이 되었다고 함.	
65	北山으로부터 100리에는 왕왕 웅장하고 견고한 古城이 있다.	
66	臨榆·撫寧으로부터 軍舖가 길가 몇 리에 걸쳐 있는데 벽에 쓰인 인원도 적고, 건물은 다 퇴락했으며 軍卒은 보이지도 않으니 중국의 兵制 또한 느슨하고 무너진 듯하다.	
67	무녕현은 城池가 險固하고 시장이 번성함. 이곳에 文筆峯이 있기 때문에 科甲大官이	

	많이 배출되었다. 明末의 故家로 流落한 자의 태반이 이 현에 거주했다. 韓愈가 독서한 遺址와 祠屋이 남아 있다. 밤에 單沆(호. 心水)을 초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小軸을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齋齋 權敦仁과 游觀 金興根이 준 시였다.	
68	驢子槽店을 지나는데 당나라 신선 張果가 나귀 먹었다는 구유가 있어서 雲樵와 함께 웃었다.	
69	永平府의 府治 10리에 射虎石이 있어 직접 가서 확인함. ‘漢飛將軍射虎石’이란 7자가 쓰인 비가 있다. 府의 사람들이 사신 수레가 오면 法帖과 名畫를 팔러 오는 이가 많았다.	
70	夷齊廟를 배알함. 주방에서 미리 고사리를 준비해서 午饌을 마련했는데 意義가 전혀 없다. 이제묘 원편에 행궁이 있고 오른 편엔 僧舍가 있다.	
71	燕寨는 平遠해서 樹木이 거의 없지만 길가에 나무를 심는 데 극히 공력을 다한다. 심양에서 북경까지 1500여 리인데 매 站마다 가로수가 많다. 遼野는 산이 없어 여름에는 태양이 이글거리고 겨울에는 바람과 먼지가 눈에 가득하므로 이 나무가 없으면 의지하고 설 수가 없다.	
72	수레 타고 가는 거지 가족의 모습, 중국의 牧畜, 부유한 자의 禽畜 취미.	
73	중국 북방 사람들의 牽馬, 牧牛의 모습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74	野鷄屯의 대추와 밤나무 숲. 『殖貨傳』의 “燕秦千樹栗” 언급.	
75	榛子店에서 점심. 『稼齋集』의 季文蘭 시, 奇豐額의 시, 燕巖의 시 인용.	
76	豐潤은 옛 督亢 땅. 縣學에 古鼎과 古尊이 있었는데 다 三代 때의 물건이라고 함.	
77	高麗堡는 우리나라 被虜인들이 거주한 곳으로, 가옥 구조 등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자칭 고려의 자손이라며 사행단에 넉넉하게 정성을 쏟았는데 요사이 驛卒들의 토색질로 삭막해졌다.	
78	玉田縣에 崧菜와 馬面이 나는데 매우 훌륭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옮겨 심은 것도 모두 이 站에서 사온 것이다.	
79	枯樹店을 지남. 지명의 유래가 된 枯樹를 찾아가 정험해보려 했으나 雲樵의 말을 듣고 그만둔.	
80	白澗店 가의 香花庵은 비구니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소나무가 모두 흰 줄기[白幹]였는데 일본 種이다.	
81	滹沱河(錯河)는 수심이 겨우 말의 배가 잠길 정도이고 다리가 몇 칸 정도의 너비임.	
82	煙郊堡, 習家莊.	
83	通州. 燈市가 성행하고 길에 수레가 가득한 大都會의 면모.	
84	潞河(白河). 천하의 배가 이곳에 모임. 江南船의 제도.	
85	통주부터 朝陽門까지 40리를 돌을 쌓아 길을 만들.	
86	東嶽廟. 祈賽 의식 묘사.	5월 2일
87	저물녘 玉河館에 도착함.	
88	三使가 禮部에 나아가 표자문을 올림.	

89	옥하관에는 衙門, 都督, 大使 각 1인과, 通官, 序班을 들.	
90	청 조정에서 전례대로 하사하는 饌物 25종.	
91	연경의 연혁과 성문의 제도.	
92	삼사가 圓明園에 감.	
93	虎圈.	
94	海淀(西山이라고도 함)에서 麋子의 집에 유숙함.	
95	紅橋.	
96	昆明湖.	
97	高粱橋에서 논을 처음 봄. 『열하일기』의 西山 稻田에 대한 언급을 인용.	
98	萬壽寺에 들름. 北路의 금불상의 크기가 이 절보다 큰 것이 없다. 도성 안에 들어와 景德街에 있는 歷代帝王廟에 갔다가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옴.	
99	중국과 조선의 문자 언어 생활의 차이.	
100	琉璃廠 구경. 同文堂에서 서적을 완상하고, 靑雲齋에서 문방구를 완상함.	
101	三慶園에 가서 搬演戲를 관람.	
102	金陵사람 劉錫介가 나와 雲樵를 초대해 安懷酒樓에서 모임. 소흥주와 함께 여러 음식을 먹었는데 자못 순차가 있었다. 유석개는 사람됨이 端詳해서 사랑스러웠다.	
103	蘆溝橋에 감.	
104	돌아오는 길에 天寧寺에 들름. 虞山 許德心이 필사한 『華嚴經』 사본을 보다. 건물 뒤에는 꽃 분계가 수천이었다. 이 절에 기숙하며 내년 봄 科擧를 준비하는 余銓 등을 만나 필담.	
105	余銓이 말해준 중국의 試闈 제도.	
106	八旗를 두어 만주인을 각 旗에 배속시켜 교습시킴. 기에 배속되면 資給이 넉넉함.	
107	요사이 영국 오랑캐의 일(아편전쟁)로 漢人들이 무함을 입어 冤憤을 품은 이가 많음. 한인 중 명망 있는 黃爵滋, 金應麟, 陳慶鏞, 蘇廷樞 등이 미미한 일로 쫓겨나서 지금 까지도 방환되지 못했다고 한다.	
108	桐菴(심희순)이 학질을 앓아 의주 아전이 사람을 불러 幻戲를 보여줌.	
109	墨林 楊尙文(임진왜란 때 조선에 온 楊鎬의 후예)이 동암에게 편지를 보내 한번 만나 자하여 나와 華山, 雲樵가 함께 갔다. 대부호, 대저택. ‘環石亭’, ‘朝爽閣’, ‘貯月軒’.	
110	宣武門 동쪽 거리를 지나는데 상점들이 모두 차양을 쳐서 햇볕을 막음.	
111	중국의 풍속은 婦女를 중시해서 요리와 옷감 짜는 일을 남자들이 가까이함.	
112	중국의 娼妓 禁止의 제도와 민간의 실태.	
113	중국과 우리나라 여성의 머리 장식.	
114	우리나라의 剃髮과 胡服을 면해줌.	
115	낙화생(망공).	
116	五龍亭 가는 길에 萬佛寺에 들름.	

117	오룡정은 중앙이 龍潭亭, 좌측이 澄祥亭, 滋香亭, 우측이 湧瑞亭, 浮翠亭임. 太液池를 사이에 두고 瓊華島(명나라 때의 ‘瀛臺’)가 있고, 조금 북쪽으로 가면 毅宗이 순절한 景山(煤山)이 있다.	
118	極樂世界. 弘仁寺.	
119	象圈과 코끼리.	
120	文廟와 石鼓.	
121	문묘 우측 彝倫堂.	
122	柴市에 들러 文丞相 사당(敎忠坊에 있음)을 배알함.	
123	돌아오는 길에 同春廠(즉 花草舖)을 들렀다가 隆福寺에 감. 북경의 큰 시장이다.	
124	夕照寺(옛 黃金臺 터).	
125	북경이 오래 가물어서 이날 황제가 기우제를 지냄. 아침부터 태양 작렬. 조선 사신들에게도 외출 금지령을 내림.	5월 15일
126	北極殿에 노닐.	
127	중국 사람들은 일용 기계에 모두 기교가 있음.	
128	『奇器圖說』에 실린 몇 가지 기계를 소개함.	
129	棗林莊을 지날 때 보았던 중국의 오이 재배법.	
130	벽돌 굽는 법과 『白沙集』의 관련 기록을 인용.	
131	벽돌로 쌓은 중국의 城制.	
132	북경 書肆의 장서가 풍부함.	
133	중국 풍속에 맑은 찌서 냉수에다 말아두고 조석으로 요기해 먹음. 과일 저장 방법이 발달해서 겨울을 나고 여름에까지 막 탄 것처럼 빛깔이 좋고 물이 많음.	
134	朴齊家の 『北學議』에 북경은 소 도살을 금하여 돼지 도살장과 양 도살장은 백여 곳이 넘어도 소 도살장은 두 곳에 불과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보니 이곳 사람들은 돼지와 양만 좋아하고 소고기는 좋아하지 않아 우리나라의 육포도 거의 입에 대지 않으니 금지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135	연경의 시장은 풍성하고 갖가지가 다 있으나 풍속은 자잘하고 아끼는 것을 숭상한다. 길가에서 목욕시켜주고 손톱 등을 정리해주는 직업, 큰길에 밧고무래를 가지고 나구나 말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 똥을 주워 담아가는 사람들.	
136	慕琴 沈亨惠는 吳興 출신의 수재로 시랑 李夢韶(李鈞)의 집에 객으로 있는데 함께 옥하관 옆에 왔다. 사람됨이 踈朗하고 시를 잘했는데 동암과 나에게 더욱 친밀하게 대했으니 同姓이란 이유 때문이었다.	
137	삼사가 賞을 받기 위해 午門 밖에 감. 백금 50냥, 紋緞 3필. 예부상서가 주관. 인하여 內務府에 가서 方物을 진상하고 돌아옴. 上馬宴. 여러 음식을 내렸는데 젓가락을 들 만한 것이 없었다.	
138	寶寧張局에서 餞別 酒宴이 열림. 楊尙文(墨林)·楊尙志 형제, 楊普曾, 한림 張穆, 주사 馮志沂, 한림 趙振祚가 참석. 참석 인물들의 인물됨. 선물 품목.	

139	隱者風の 羊皮 장사꾼과의 필담.	
140	아편 담배와 영국 오랑캐.	
141	봉황성의 大賈 德謨는 아편쟁이.	
142	아침에 先來 편에 回畝文 7통을 보내고, 本陣은 저물녘에 조양문을 나섬. 새장을 벗어난는 새의 기본. 5월 3일 북경에 들어와 29일 동쪽으로 돌아가니 옥허관에 머무른 것이 27일이다.	5월 29일
143	邦均店에 도착함. 지름길을 버리고 徐家莊으로 향하는데 비가 퍼부었다. 西五里橋 길가에 살구가 막 익었다.	
144	薊州는 春秋시대 無終子國이다. 세상에 전하길 黃帝가 廣成子를 만난 곳이라 한다. 獨樂寺에서 쉬면서 觀音之閣 편액과 臥佛을 봄.	
145	漁陽을 지남. 이 땅은 예로부터 精兵이 있는 곳이라 일컬어졌기 때문에 한나라 彭寵, 당나라 安祿山이 모두 이곳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146	連山驛을 출발하여 溫井에 도착함.	
147	大凌河에 도착함. 저물녘 바람이 사나워 배로 건널 수가 없었다. 강가에서 夜行을 하다가 길을 잃어 수십 리를 돌다가 金錢所에 도착했는데 닭이 울었다. 수레에서 졸다가 鬃巾을 떨어뜨려 잃어버렸는데 이튿날 누가 길에서 주워 돌려주었다. 越人에게 章甫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었다.	
148	高麗河를 출발해 발두둑으로 어지러이 가는데 진흙길이라 수레가 연거푸 빠졌다. 저물녘에야 塔院에 도착하였다. 탑원 북쪽 10리쯤에 숲이 울창한데 皇帝의 始祖 陵이다. 중국 사람들의 塚墓는 오로지 평지에 쓰고 주위도 매우 험소하여 애초에 砂水穴星을 논할 것이 없다.	
149	三道巴를 지나는데 시내가 불어 건널 수가 없었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高麗叢에서 잠시 쉬는데 마을 사람들이 물려와 구경하며 나의 狹袖를 문지르며 “종다”를 연발했다. 대개 중국인은 우리나라의 白苧(모시)를 가장 귀히 여긴다.	
150	비 때문에 湯河에서 이틀을 머물. 버리길에서의 위험. 해가 저물어서야 狼山大道에 도착하였다. 의주 통사가 술, 생강, 육포 등의 선물을 가지고 와서 알현. 痛飲.	
151	총명 該洽하고 蟲魚草木의 이름에 밝은 主簿 朴善性과의 일화. 이번에 당하를 지나면서 본 나무 덕분에 그의 회화나무[槐]에 관한 설이 잘못임을 알게 됨.	
152	黃家莊을 출발함. 큰 시내에 가로막혀 촌사람이 만든 열악한 배로 건너다가 배가 뒤집혀 역관 金文周의 모든 짐 꾸러미가 물에 빠짐. 나는 마지막에 건넜다. 車夫를 먼저 떠나보내서 운초와 걸어서 小長嶺을 지나 밤에 松站에 도착했더니 廚房이 이미 다 출발해버려 가게[廡]에서 밥을 사먹었다. 한 끼 값이 108文이었다.	
153	伯顏洞店을 지남. 아침 햇살이 붉었는데 김문주가 휘장을 걷어 올려 물에 젖은 행장들을 말렸다. 백금의 돈으로 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 나의 행장에는 중국 물건이 없고, 옷과 이불, 서적도 겨우 상자의 반밖에 안 찼으니, 이는 무일푼이라 그런 것이긴 하지만 행동거지가 깔끔하여 조금의 구속됨도 없으니 淸快하다.	
154	九連城에 도착함. 막 장마를 겪어 三江이 하나가 되어 아득히 滄海를 이루었다. 이날	

	날이 더워 강변의 작은 언덕에 올라 納涼을 하는데 趕牟이 햇불로 도움을 주었다. 강 건너로 統軍亭이 눈에 들어와 나도 모르게 반가웠다.	
155	燕路의 宏麗함은 응당 세 단계로 나누어 봐야 한다. 처음은 鳳城이고, 그 다음은 瀋陽이고, 그 다음은 通州이다.	
156	동팔참~요야. 대략 400여 리. 총 도정은 2,160리. 왕복 64일. 사람 204명, 말 80여 필.	

책문(柵門)을 지나 봉황성으로 가면서 조선 사신 일행은 수레를 세 내어 타고 간다. 심응지 역시 말에서 수레로 옮겨 타고 이동하였는데 중국의 수레 제도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심응지의 북학사상의 영향, 실용성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다. 북학파의 수레 이용론은 홍대용(洪大容)의 『연기(燕記)』 「기용(器用)」, 박제가(朴齊家) 『북학의(北學議)·내편』 <거(車)>, 박지원(朴趾源)의 『열하일기(熱河日記)』 「일신수필(駟汎隨筆)」의 <거제(車制)>, 이희경(李喜經)의 『설수외사(雪岫外史)』 등에 각종 수레의 구조와 효용, 그 광범위한 사용의 필요성이 자세히 나와 있다.³²⁾ 이 견해는 19세기로도 이어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의 제자 이강희(李綱會)의 「제거설(諸車說)」 및 「거설답객난(車說答客難)」,³³⁾ 연행록으로는 김경선(金景善)의 『연원직지(燕輾直指)』 <기용(器用)>과 <인물풍속(人物風俗)> 조, 윤정(尹程)의 『서행록(西行錄)』 등으로 이어졌다.³⁴⁾ 심응지의 『운연과안록』 역시 조선과 중국의 수레 제도를 비교하며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전략) 중국은 수레 제도가 두 가지가 있으니 대거(大車)와 승거(乘車)다. 대거는 짐을 싣는 데 사용한다. 바퀴의 높이가 승거보다 낮지만 네 주변에 난간을 만들어 물건을 거두며, 곡식인 경우 그 안에 곧바로 쏟아 부어 주머니나 상자를 쓰지 않는다. 거적으로 덮개를 만들어 허공에 둥글게 띄워 상인과 수레꾼이 함께 들어갈 곳으로 삼았다. 참마(驂馬)와 복마(服馬)는 나귀, 노새, 소, 말을 잡다하게

32) 박지원의 수레 이용론은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92~93, 120면.
 33) 안대회, 「다산 제자 이강희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 제10집, 한국실학학회, 2005. 번역 전문은 이강희 저, 김형만·김정섭·안대회 역, 『운곡잡저』, 신안문화원, 2004 참조.
 34) 尹程, 『西行錄』 坤, 1845년 2월 4일. 19세기 전반 연행록의 수레 관련 자료는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191~194면.

쓰는데 많은 경우 10여 마리가 끌기도 한다. 굴대 밖에 두 개의 큰 고리를 만들어 끈으로 연결했는데 앞에는 북마의 목에 묶고 결마의 옆으로 연결하였다. 유환(游環)과 협구(脅驅)의 남은 뜻을 얻었으나 진흙을 만나면 바퀴가 땅에 빠져 그것을 옮길 때 걸핏하면 양식이 드니, 다니는 사람들이 병통으로 여긴다.

승거는 바퀴 높이가 다섯 자 남짓으로 첫조각을 돌렸는데 매 첫조각은 각각 길이가 몇 치로 우리나라의 합입(合楨, 속칭 銀丁이다. 원주)과 같다. 은못을 양쪽 솔기에 단단히 끼우고 바퀴살을 붉게 칠하였다. 바퀴살마다 큰머리못을 박는데 못의 머리는 황동으로 도금하고 꽃잎 모양을 넣어서 바라보면 번쩍거린다. 끝채를 굴대에 대었는데 앞은 길고 뒤는 짧아 삼분의 일이다. 굴대 위에 방을 만들어 놓고 네 면에 모두 난간 같은 판을 설치했는데 깊이가 대략 4치이다. 난간 위는 나뭇가지를 중횡으로 뺨뺨이 하여 가는 화살문과 같았다. 나무를 휘어 시렁을 만들어 머리를 덮고 검은 베를 붙였는데 거북등처럼 휘어있다. 그러므로 승거는 모자를 쓴 채 높이 앉아도 모자 끝이 닿지 않는다. 앞면을 비취 사람이 출입하게 하고, 앞에서 가까운 곳 좌우에 별도로 작은 창을 내어 검은 베와 공단·우단을 박음질하여 휘장을 만들었다. 창문은 단추로 열고 닫는데 유리와 명주로 장식하여 관람에 편리하게 하였다. 좌우에 익장(翼帳)을 만들고 각각 첫덩이 두 개를 세워서 맑으면 걷어 올리고, 비가 오면 제거한다. 앞에는 면장(面帳)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한 길 남짓으로 멍에 끝에 두 개의 붉은 기둥을 세우고, 비단 끈을 매어 팽팽하게 만들어 햇볕도 가리고 비도 가린다. 무늬 비단 두 조각을 꿰매어 앞에 드리워 먼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문패를 갖춘 것이 매우 화려하다. 자리 뒤에 옷 보자기, 짐 상자, 책 보따리, 술통 등의 도구를 두고, 남은 공간은 족히 한 사람이 앉거나 누울 수 있다. 한가하면 책을 읽고 피곤하면 기대어 잠잘 수 있다.³⁵⁾

35) 심음지, 『운연과안록』 제20칙, “車制之廢久矣, 輓輻圖式俱存, 而今不可攷. 我國輻車·坐車, 本非古制, 而必須多人扶護, 已失簡便之方. 牛車則造法樸陋, 輪不堅緻, 種種傷蔽, 上無翰蔽以禦風雨, 故實無以致遠. 中國則車制有二, 曰大車, 曰乘車. 大車用以任載, 輪高劣於乘車, 四週爲闌以收物, 而殺粟則直瀉於內, 不用囊箱, 以簾爲蔽, 屈外空中, 自商人車夫並爲入處. 驂與服則雜用驢騾牛馬, 多至十餘頭, 而設兩大環於軸外, 繫繩索, 前加於服馬之項, 帶出於驂馬之旁, 得游環·脅驅之遺意, 而但遇泥濘, 則輪陷於地, 轉移之頃, 動費數炊, 行者病焉. 乘車則輪高五尺餘, 以鐵片週圍, 而每片各長數寸, 如我國合楨(俗稱銀丁). 丁子緊夾其兩縫, 朱其輻以設色, 而每輻着廣頭丁, 丁頭鍍黃銅爲花瓣文, 望之星星, 轅當於軸, 前長後短, 居參之一. 屋當於軸上, 而四面設欄板, 約深四寸, 欄上用條木, 縱橫密緻, 如細籬門. 椽木爲架以蓋頂, 而貼皂色布, 穹窿若龜背, 故乘車者戴髮帽高坐, 而帽頂不礙. 虛其前面, 用人出入, 左右近前處別穿小窓, 縫皂布綾緞爲揮帳, 而當窓處用紐子開閉, 飾以琉璃絲縵, 俾便觀覽. 左右爲翼帳, 各豎鐵錠兒兩條, 晴則裹起, 雨則去之. 前爲面帳, 長可丈餘, 樹兩形柱於軸端, 維絲索以撐起, 遮陽遮雨, 縫文緞兩片垂於前, 以防塵埃之來. 號門懸子, 備極華麗, 坐後置衣袱·行箱·書囊·酒榼等具, 餘地足容一人

심응지는 화물을 운반하는 대거(大車)와 사람을 태우는 승거(乘車-일명 태평車)의 제도를 특히 치밀하게 관찰하였다. 박지원이 <거제>에서 제반 사항을 소개한 것보다 『운연과안록』의 기록이 훨씬 더 구체적이다. 심응지가 수레 사용을 촉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중국의 진일보한 수레 제작술을 받아들여 조선의 낙후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뚜렷한 문제의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⁶⁾ 아울러 심응지는 『열하일기』를 비롯한 선행 기록³⁷⁾을 바탕으로 여마(驢磨), 석저(石杵), 양선(颶扇), 방사(方篩), 포종(匏種), 장참(長鑿), 수차(水車), 교차(攪車), 소차(纜車), 석탄(石炭) 등 10종의 기구를 특화하여 그 장점을 간명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병기와 농기구가 조선보다 발달하게 된 원동력으로 석탄의 사용을 꼽았다.³⁸⁾ 또한 『기기도설(奇器圖說)』³⁹⁾의 각종 기기들을 보고 이를 농가에 널리 배포하면 백성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⁴⁰⁾

심응지는 청조의 선진 기술에 감명을 받고 백성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는 이항복(李恒福)의 『백사집(白沙集)』⁴¹⁾에서 벽돌 제조법을 발췌해놓는가 하면,⁴²⁾ 옹성(甕城), 여장(女墻),

坐臥，閒則閱書籍，倦則可凭而睡。”

36) 심응지의 수레 관련 언급 및 이용후생학은 임영길, 앞의 논문, 194~198면을 참조했다.

37)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93면.

38)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27칙, “北人見於日用械器，皆有機巧，故用力省而見功多。有驢磨焉，以布片遮眼，終日回旋，不費人力而糶糙矣。有石杵焉，雖萬斛之多，春繫不勞矣。有颶扇焉，一人颶之，如風揚塵矣。有方篩焉，四週爲壁，懸篩其中，一人在外路搖，則篩之甚多，而點屑不遺矣。有匏種焉，播穀易而下種勻矣。有長鑿(如大葛葉，長三尺餘)焉，立而刮土，耘不病腰矣。有水車焉，翻江過山，不憂嘆乾矣。有攪車焉，人日核八九十矣。有纜車焉，爲兩牙輪，齟齬相當，施鐵孔於端，抽絲其中，故刊毛去芒，不勞灰練矣。有石炭焉，火力極猛，能鍛剛鐵，故兵器·農器利於我國矣。此皆便於濟用者也。”

39) 명 王徵(1571~1644)이 저술한 『新制諸器圖說』로 조선에는 ‘고금도서집성본’을 비롯하여 1816년 간본, 1830년 간본 등이 입수되었으며 다산 정약용의 필사본도 현존하고 있다(송실대 소장). 총 9종 기계의 圖解를 수록한 책이다.

40)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28칙, “『奇器圖說』，王葵心徵所著也。徵，天啓間人，闖賊亂聞京師失守，不食，死，諡忠節。嘗造虹吸·鶴飲(水車名)·輪壺(漏刻所用)·代耕·自行車·自轉磨，以便於人。見其圖，極有巧思，廣布農家，可以有濟也。”

41) 심응지는 이항복의 후손과 인척간이다.

42)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30칙, “燒甕甕有灌頂之妙，故性不燥硬，善受灰黏。嘗見『白沙集』有甕法，錄于左方，以備有志者考覽。甕法，每一窰用人四名，作役四日而畢。其間刈艸或稻穢三百束，用水浸泥，如和麩麵，填之甕版，其版一座，隔木爲兩版，俟土平，更不費手築，和泥甚滑，故不煩人力，自能和合，每人日築甕甕四百介，覆置待曬乾入窰，燒晝夜共三日則熟，大窰得甕一萬

치도(馳道)를 갖추어 견고하게 쌓은 중국의 성제(城制)에 감탄하면서 이 제도를 강구하여 철저히 방비할 것을 건의하였다.

성은 모름지기 벽돌로 쌓아야 비로소 견고하다. 일찍이 지안문(地安門)을 지나다가 성이 무너진 곳을 보았다. 벽돌이 이층으로 이어져 퇴락되었으나 속은 두 겹이라 견고하기가 그대로였다. 그 성의 두터움을 헤아려보니 웅당 수십 겹이 되어 운계(雲梯-성벽을 기어오르는 사다리)나 충차(衝車-성문을 격파하는 수레) 같은 장비로도 짧은 시간에 갑자기 격파할 수 없다. 황성 밖 100보에는 반드시 웅성을 쌓아 마주하게 하여 성에 붙는 적을 막는다. 성 위의 내외에는 모두 여장(女牆-성가퀴)을 쌓고 그 사이에 치도(馳道-말이 달리는 길)를 만들었는데 3기(騎)가 넉넉히 열을 지을 수 있다. 수첩졸(守堞卒)과 수문장(守門將)을 두어 그 빗장을 채우는 것을 엄히 하여 체직(遞直)하는 날이 아니면 들어가서 감히 나올 수 없으니 위급한 상황을 맞더라도 도망가거나 흩어질 수 없다. 이와 같고 나서야 밖으로 막고 안으로 지키는 계책을 다할 수 있는 것이니 국가를 위해 깊고 먼 근심을 하는 자는 이 제도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⁴³⁾

벽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위 글은 먼저 전체적으로 중국에서 성을 쌓을 때 벽돌을 이층으로 놓고 성을 수십 겹으로 세우며 성 밖에 웅성을 둠으로써 적의 급습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 다음 세부적으로 성 내외에 성가퀴와 치도를 만들고 겹겹의 성가퀴마다 수문장을 세워 전쟁이 났을 때 성을 지키는 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단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청의 성(城) 제도를 우리나라에 적용시켜 방어에 힘써야 한다는 심옹지의 주장은 단순한 관찰과 보고의 차원을 넘어 비슷한 시기 연행을 경험한 이들보다 한 단계 더 심화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⁴⁴⁾

介, 每磚百介, 買銀一錢二分, 一窰四人役, 四日得磚萬張.” 이 가사는 『白沙先生別集』 권5에 수록된 『朝天錄』 下, 『記聞』에 있다.

43) 심옹지, 『운연과안록』 제131칙, “城須巒築始固. 嘗過地安門, 見城壞處, 巒兩重相帶, 退落而裏重所築, 堅緻自如. 計其城厚, 當爲數十重, 雖有梯衝攻城之具, 不可以時日猝破. 皇城外百步, 必築甕城相對, 以禦附城之賊. 城上內外皆築女牆, 其間爲馳道, 三騎優可成列. 置守堞卒·門將, 嚴其鍵閉, 非遇遞直之日, 則入而不敢出, 雖遇危急, 無以逃散. 如此而後, 盡外禦內守之策, 爲國家深遠慮者, 不可不講究此制.”

44) 19세기 연행록에 보이는 城制論에 대해서는 許放, 『철종시대 燕行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201~205면; 임영길, 앞의 논문, 197~198면 참조.

이상에서 수레와 성제를 중심으로 심응지의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을 살펴 보아왔지만 그의 관심과 관찰력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자연스레 청나라의 국제 정세, 민간 사회의 동태 및 풍속 등으로 확장된다. 제54칙부터 60칙까지는 산해관의 약포(藥舖) 주인 곽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주로 적어놓았는데 곽씨의 모친 강씨가 절행(節行)이 있어 국가로부터 최근에 정포(旌褒)를 받았다면서 청나라의 포양(褒揚) 제도 절차를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 끝에 “그러나 각 주의 부헌(府憲)이 오로지 탐욕과 너물만 일삼아 탁월한 행실이 있어도 돈을 쓰지 않고서는 상부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적고 있어 청 사회의 부정부패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⁴⁵⁾ 이외에도 병제(兵制)의 해이해짐(제66칙), 수레 및 목축(牧畜)의 보편화와 금축(禽畜) 취미(제72칙), 중국의 창기(娼妓) 금지 제도와 민간의 실태(제112칙) 등이 그것이다.

제1차 아편전쟁 직후 연행록들에는 국제 정세 인식이 전환된 정황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중에도 『운연과안록』에 수록된 정보들은 특히 주목된다.⁴⁶⁾

아편(『本草綱目』 중 營粟殼의 일명이다. 원주담배는 영국 오랑캐에서 나온 것으로 검고 끈적거리는 것이 담배 진액과 같다. 정기를 돌아오게 하고 충기를 돕는다고 전해진다. 중국 사람들이 은화를 많이 주고 사들여온다. 담배대(烟袋)를 사용하여 흡입하는데 하루에 3, 4대만 피우고 그친다. 그러나 그 한도를 조금 넘으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질식되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같이 된다. 매년 영국 선박으로 들어가는 은화가 점차 수 만 금에 이르자, 황제가 칙유를 내려 남쪽 변방에 금헌(禁憲)을 엄하게 세우고 교역을 단절하라 명하였다. 연전에 영국 오랑캐가 이러한 조치에 원한을 품고 트집을 잡아 전쟁이 계속되어 해결되지 않았다. 드디어 강화(講和)를 허락하니 예전처럼 교시(交市)하여 은 가격이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람의 목숨이 하늘을 거슬러 장차 훗날 끝없는 화의 근원이 될 것이다.⁴⁷⁾

45)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60칙, “舖主母, 姓姜, 有節行, 新蒙旌褒. 國例凡有卓行, 則將本人事實, 洩廩呈, 請於本學, 使轉詳本縣, 則縣詳於督憲, 督憲始爲登聞, 而皇帝下旨, 着本縣掛匾, 或建立節孝坊. 然各州府憲, 專事貪婪, 雖有卓絕之行, 非費金銀, 不得上達云.”

46) 이 시기 국제(중국) 정세에 대한 정보는 임영길, 앞의 논문, 158~160면 참조.

47)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40칙, “鴉片(『本草』營粟殼一名)烟, 出口英夷, 黑黏如烟液, 相傳還精補聰. 北人多銀貨買來, 吸用烟袋, 日限三四竹而止. 然少過其限, 則精神昏窒, 若頃刻就盡者. 每年銀貨之歸於口英舶者, 駸駸至鉅萬, 皇帝諭南邊嚴設禁憲, 絕其交易. 年前口英夷嘍此起

제140칙에서 심응지는 아편담배의 유래와 형태, 효능, 피우는 방법, 하루 제한량을 초과할 시의 부작용을 소개하였다. 또 아편 구입량의 증가로 수만 금의 은화가 유출되므로 황제가 아편 엄금령을 내리고 영국과의 교역을 차단했다가 전쟁이 일어났으며, 결국 영국과 강화를 맺고 교역을 재개했으나 은 가격이 날로 폭등하고 있는 실정을 특기하였다. 짧은 편폭이지만 심응지는 자신의 견문에 근거하여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남경조약의 실체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응지는 아편으로 인해 화가 끊이지 않으리라는 사실까지 예견하고 있다.⁴⁸⁾ 또한 141칙에서는 봉황성(鳳凰城)에서 만난 덕모(德謨)라는 거상의 사례를 들어 아편의 해로움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⁴⁹⁾ 이를 통해 아편의 폐해가 이미 오랜 기간 중국 전역에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심응지는 금주(錦州)를 지나면서 영국과의 전투에 대비하여 해변에 대포를 설치한 광경을 목도하고, 임유현(臨榆縣)과 무령현(撫寧縣)에서는 중국의 군제가 해이해졌음을 언급하는 등⁵⁰⁾ 제1차 아편전쟁이 종료된 후에도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 긴장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체감하였다. 한편 심응지는 아편 무역 엄금책과 주전론(主戰論)을 고수하던 청류파(清流派) 관료 황작자(黃爵滋)·김응린(金應麟)·진경용(陳慶鏞)·소정괴(蘇廷樞) 등이 사소한 일로 무고를 당해 폄직된 사실도 언급하였다.⁵¹⁾ 관직의 변동 여부는 저보(邸報)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만인(滿人-만주족 관료)

變，兵連不解，遂許講和，交市如舊，銀直朔貴，人命橫天，將爲異日無窮禍源。”

48) 임영길, 앞의 논문, 159면. 아울러 “심응지의 이러한 기록과 인식은 1842년 동지 겸 사행의 정사 이정응과 서장관 조봉하의 경우에서 보듯이 영국과 화친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나 침략당할 폐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과는 상이한 것”이라고 논평하였다.

49)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41칙, “德謨者，鳳城大賈也，實累鉅萬，而亦服鴉片，大抵財貨出入之數，雖銖寸之微十年之久者，不用簿書，而一無所遺，人謂鴉片力也。然食訖，鼻瀉黃黃，容色瘦黑，若久病人。”

50)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47칙, “入錦州界，路旁有礮房，載大砲六座於車上，孔徑四寸餘。州近海邊，去年因英夷入寇，沿海處多置礮房，以備豫云。” 제66칙, “自臨榆·撫寧，軍舖次第傍路間數里，而輒一舖之壁書巡役·兵正·更夫·保正姓名，多不過十餘人，所以伺察盜賊，照管行旅，而舖屋在在圯毀，亦無見卒，中國兵制亦似弛廢也。”

51)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07칙, “近以暎夷事，漢人被誣，多懷冤憤，漢官中稍有時望者，如黃爵滋·金應麟·陳慶鏞·蘇廷樞等，皆以微事竄黜，至今未有云。” 이 사실은 서장관 심희순의 「문견별단」에도 기록되어 있다. 『일성록』 현종 12년(1846) 7월 8일조, <書狀官(沈熙淳)聞見別單>.

에 의한 탄압이라는 저간의 사정을 파악한 점에서 심응지가 교체했던 한족 문인들로부터 직접 전해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⁵²⁾

제136칙과 138칙에는 심응지가 교유한 청 문사들의 면면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⁵³⁾ 이 교유는 북학과와 청 문사 교유의 맥락에서 검토가 가능하다. 즉, 풍지기(馮志沂)는 도광(道光) 연간 동성파(桐城派)의 영수 매증량(梅曾亮)의 제자로서 고문(古文)에 능했던 인물이고, 장목(張穆)은 『고정림 연보(顧亭林年譜)』를 저술하고 풍지기·주기(朱琦)·하소기(何紹基) 등과 함께 북경의 자인사(慈仁寺)에 고염무(顧炎武) 사당을 세운 발의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박규수(朴珪壽)가 중국에서 친밀하게 교체했던 동문환(董文煥)의 벗이었다. 조진조(趙振祚)는 상주(常州) 공양학파(公羊學派) 유봉록(劉逢祿)의 생질로, 장목과 조진조는 추사의 제자 이상적(李尙迪)의 부탁을 받아 『세한도(歲寒圖)』에 제사(題辭)를 쓰기도 했다. 그리고 이균(李鈞, 자伯衡)은 1826~27년 홍양후(洪良厚)가 그에게 김영작(金永爵)의 글을 소개해 준 인연으로 김영작 및 신석우(申錫愚)와 서신 교류를 이어갔던 인물이다. 이 시기 조선 문인들이 만난 중국 인사들은 대체로 정치적으로 개혁적 성향이었고 학술적으로 고염무를 숭배하고 사숙하였으며 문학적으로 동성과 문인에 속했다.⁵⁴⁾ 요컨대 심응지가 만난 인사들은 19세기 한중 문인 교

52) “아편의 폐해와 영국의 횡포에 대한 심응지의 기록들은 중국의 상황에 비추어 대두된 위기 의식이 비단 몇몇 조선 문인들의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후에도 李啓朝의 『燕行日記』(1849)나 沈敦永의 『燕行錄』(1849)을 보면 청과 영국 간의 여러 사건들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남경조약 이후 일련의 보고들은 19세기 전반 연행록들이 당시 격변하는 정세를 예의주시했음을 입증하고 있다.”(임영길, 앞의 논문, 160면) 규장각 상백문고에 소장된 『경제문초(經濟文鈔)』(필사본 1책)에는 1843년 무렵 소정교, 진경용 등이 청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을 베껴놓고 있어 이들의 글이 연행사들을 통해 입수되었음을 보여준다.

53) 19세기 조정 문사 교유 양상 고구와 관련해 심응지가 기록한 교유의 현장을 잠시 소개한다.(이 조선 사행과 한족 문인과의 교류는 박영원, 『연행일록』 하, 1846년 5월 11일조 및 5월 18일조, 5월 27일조도 참조할 필요가 있다)

“沈慕琴亨惠·吳興秀才客李侍郎夢韶所。偕至館旁，爲人踈朗，長於吟詠。見桐菴與余款甚，以其同姓故也。因說西湖荷桂之勝，繁華非復舊日，獨烟雨樓尙今巋然，擅於江南爾。”(제136칙)

“觴於寶寧張局爲飲饑也，墨林兄弟(楊尙志)，少年善曾(字省吾)，張翰林穆(號石洲)，馮主事志沂(號適齋)，趙翰林振祚皆會焉。(중략) 趙問貞蕪閣有後，因學牧齋·亭林遺事，妮妮可聽，至暮始罷。張器宇磊落，顧顛偉如，能文善書，而以漢人故，偃蹇不調，頗有佛鬱之氣。馮動止端詳，長於古文。趙文識該洽，而近於碎絮。墨林謚余花梨使面，手書『表峯紀功碑』。『讀史紀略』一卷副焉。墨林所校讐新刊者也。”(제138칙)

54) 김명호, 『동문환의 『한격시존』과 한중 문학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제26집, 한국한문학

유의 흐름에서 추사와 북학파의 교류를 잇는 중심인물에 속했기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운연과안록』에는 이용후생, 정세탐문, 풍속기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유명한 ‘계문연수’를 소재로 하고 있는 다음 칙은 심응지의 문예적 역량이 잘 발휘된 글이다.

조화옹이 물(物)을 낭음에 문장(文章)의 기이함과 화려함으로 능함을 보였다. 때문에 구름의 마음, 물의 기미 같은 무정(無情)한 것일지라도 물고기와 비늘, 흰 구름과 푸른 개⁵⁵⁾가 있기도 하고 벌레의 글, 새의 발자국 같은 지극히 미미한 것에서도 그림과 전주(篆籀)를 만들어냈다. 내가 요동(遼東) 광야를 지나는데 하늘이 망망히 아득하여 앞을 가로막는 그 어떤 언덕조차 없었다. 황사(黃沙)만이 난 무하여 멀리 보는 데 사람을 시름겹게 할 뿐이었다. 혼자 속으로,

‘천리 땅이 넓지 않은 것이 아니니 모름지기 아름다운 산과 기이한 물로 그 사이에 채색을 하여야 할 것이어늘 다만 만연(曼衍)하고 평광(平曠)함에 그쳤을 뿐이니 조화옹은 참으로 무능하구나.’

라 생각했다. 아침에 일어나 수레에 오르니 어제의 만연(曼衍)했던 것이 갑자기 창해(滄海)로 바뀌어 희미한 것이 그 끝이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간간이 물결 사이에서 나와 뺨뺨하기도 성기기도 가리기도 비추기도 하면서 선명하기도 하고 우뚝하기도 하였다. 동해(東海)는 때때로 머물며 반쯤을 겨우 드러냈는데 담장 밖 나그네는 그 상투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촌사의 모습도 대략 물가에 거적이 덮힌 것 같아서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 닭 울고 개 짖는 소리가 때로 흐릿한 허공에서 들리나니 소산(小山) 운중(雲中)의 이야기⁵⁶⁾가 참으로 맹랑한 것도 아니다. 돌아보며 놀라 멍하니 있는데 간졸(趕卒)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는 연수(煙樹)입니다. 대야(大野)의 기가 증발해 안개가 되는데 요(遼)부터 계(薊)에 이르기까지 왕왕 이와 같으니 기관(奇觀)이지요. 경(境)이 다하도록 모두 이렇습니다.”

회, 2000, 399~406면.

55) 두보 시 『又觀』의 “天上浮雲如白衣，斯須改變如蒼狗.”에서 나온 말이다.

56) 소산(小山)은 한(漢)나라 회남왕(淮南王) 유안(劉安)의 문객이다. 『論衡』 『道虛』에, 유안이 신선술을 터득하여 단약(丹藥)을 제련한 뒤에 온 가족에게 먹이고는 함께 대낮에 승천(昇天)하였는데, 그 집의 닭과 개도 그곳에 남아 있던 단약을 훔아 먹고 하늘에 올라가서 “개는 천상에서 짖고 닭은 구름 속에서 울었다.[犬吠於天上 鷄鳴於雲中]”라는 전설이 전한다.

라 하였다. 아, 연 땅은 멀고도 황량하여 역사 기록에 전하는 것이라곤 장성(長城) 역수(易水) 등 몇이 되지 않는다. 연수(烟樹)의 기이함은 참으로 고급의 절경이건만 애석하게도 시인(詩人) 운사(韻士)의 자취가 다다르지 않아 문혀 전하지 못하고 쇠잔한 기름 남은 향이 왕래하는 우리 사신에게서나 겨우 보일 뿐이니 문장의 기이함과 화려함 역시 우(遇) 불우(不遇)의 다름이 있구나. 조화옹의 공력이 그 능력을 잘못 썼다고 할 만하다. 내가 연수(烟樹)를 위해 한번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⁵⁷⁾

요동에서 언덕 하나 없는 넓은 들판을 보며 조화옹의 숨씨를 참 무미건 조화다고 생각했다가 다음날 아침 눈앞에 펼쳐진 희뿌연 안개 속에 신기투 같이 환상적인 기관(奇觀)에 감탄하며 썼다. ‘칙’별 잡록에 한 편의 독립된 문학 작품의 완전한 구조를 갖춘 이런 글은 동시기 연행록에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IV. 『운연과안록』의 가치-결론을 대신하여

심응지(1792~1860)는 경기 김포 지역에 세거한 한미한 문사였다. 그의 문학적 소양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며 폭넓은 독서 범위도 살필 수 있다. 특히 이항복, 박지원, 박제가 등의 이용후생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유관(游觀)에는 화가, 풍수가, 서자(書者)”가 꼭 필요하다(제3칙)고 말한 것처럼 그 스스로 풍수가의 지식도 꽤 가지고 있

57)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33칙, “造化之生物, 以文章奇縟爲能, 故雲心水機之無情, 而魚鱗馬衣狗焉, 虫書鳥跡之至微而圖繪焉篆籀焉. 余過遼東廣野, 粘天茫茫, 無培塿之遮隔於前者, 黃沙亂葦, 極目愁人, 竊語於心曰: ‘千里之地, 不爲不廣, 則須有佳山奇水, 設色於其間, 而直曼衍平曠而止, 造化固無能矣.’ 朝起登車, 向之曼衍者, 忽變而爲滄海, 迷不見涯, 林木之間出於波際者, 稠疎掩映, 歷歷亭亭, 東海時留, 半體纔露, 而牆外之旅, 只見其髻, 村舍之來, 略如苦焦之錯於洲渚, 乍見乍隱, 鷄鳴犬吠, 有時相聞於空濛之墟, 小山雲中之說, 信不誣矣. 余顧而怡然, 趕卒前曰: ‘是烟樹也. 大野之氣蒸而爲烟, 自遼至薊, 往往如是, 是奇觀也. 既盡境而皆然.’ 噫, 燕地荒遠, 自長城易水, 不數數於史傳, 然烟樹之奇, 儘爲古今之絕境, 而惜乎騷人韻士, 足跡不到, 沒沒無傳, 殘膏賸馥, 僅見東槎之來往, 文章奇縟, 亦有遇不遇之異, 而造化之功, 可謂謬用其能矣. 余爲烟樹不得不一慟.”

었고,⁵⁸⁾ 석조사(夕照寺)의 황금대 유지(遺址)를 바라보면서 연 소왕(燕昭王)의 복수설치(復讐雪恥)처럼 ‘명나라(한족)’의 회복을 꿈꾸는 보수주의자의 면모도 있긴 했지만⁵⁹⁾ 예리한 시각과 간략 정밀한 필치로 자신의 중국 견문을 기록하였다.

『운연과안록』의 ‘여정(旅程) 순에 맞춘 칙(則)별 간략 기술 방식’은 1차적으로는 “저자 자신의 거친 성격”에 기인할 수도 있겠지만 19세기 몰개성 연행록의 홍수 속에 자기 나름대로 ‘간결’과 ‘신빙’을 추구하며 내용과 형식의 새로운 양식을 창출해낸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이런 방식의 유사 사례는 1784년 김조(金照, 1754~1825)의 연행록이 이미 보여준 바 있지만 결코 흔한 사례는 아니다.⁶⁰⁾ 김조 연행록의 ‘시적(詩的) 산문(散文)’의 감각적이고 개성적인 경지를 심응지의 연행록이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지루한 고증적 사실의 나열로 일관한 19세기의 많은 연행록들⁶¹⁾-정사 박영원의 『연행일록』도 다소 이런 성향이 있다⁶²⁾-과 큰 차이를 보이며 나름의 뚜렷한 의의를 갖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지루함’과 ‘천편일률’은 19세기 연행록들에서 느껴지는 전반적 인상이다. 반면에 그런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형식상의 실험을 한 연행록의 등장 역시 19세기의 양상이다(이런 개성적 연행록의 실물은 매우 드물다).

『운연과안록』은 이처럼 ‘진부함’와 ‘실험성’이 공존한 시기에 ‘간결’과 ‘신빙’을 추구하며 나온 개성적인 스타일의 연행 잡록이다. 청나라의 정세 관찰과 이용후생에 대한 관심에서 최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리, 풍속, 사회 현상 등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관찰력도 돋보인다. 문인으

58) 제148칙에 塔院의 황제 시조릉를 보면서 “龍虎案對”, “砂水穴星” 등을 운운하고 있다. 이는 풍수학의 용어들이다.

59) 심응지, 『운연과안록』 제124칙, “夕照寺, 古黃金臺遺址, 顏阜數畝, 榛莽滿目, 尙今人釃涕, 地理人事之變遷興廢, 相尋於無窮. 倘有皇明遺裔, 起自草中, 踵燕昭故事, 招延豪傑, 以圖復讐, 則寺之復爲臺, 亦未可知, 第俟來日.”

60) 김조의 연행록(관해록)은 60개 항목으로 대체로 여정 순으로 시간 장소를 안배해 썼다. 김영진, 『金照의 연행록 『觀海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9집, 한국한문학회, 2015.

61) 19세기에 들어와서 쏟아져 나올 대로 나온 수많은 유사한 연행록들, 이들 대부분이 엇비슷해 보이는 인상을 초래한 것은 ‘고증적 사실의 베끼기-전제(轉載)’가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62) 박영원의 『연행일록』은 같은 소론계 선배들의 연행록인 이의봉의 『북원록』과 홍경모의 『연운외사』의 절대적인 수용이 보인다. 이런 인용, 고증 부분들 때문에 좀 지루하기도 하다. 다만 북경 내에서의 기록은 또 참신한 내용이 꽤 있다.

로서 멋을 부린 문체도 종종 느껴지는데 문학적 필치가 수려(秀麗)한 부분도 꽤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연과안록』은 19세기 연행록 중에 의미 있는 신자료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沈應之, 雲煙過眼錄, 필사본 1책, 국립중앙도서관.
沈宜復, 滄北遺稿, 필사본 2권1책, 일본 오사카부립 中之島도서관.
朴永元, 燕行日錄, 필사본 3책, 일본 천리도서관(今西龍 구장본).
_____, 燕槎錄, 필사본 1책, 미국 하버드대 燕京도서관.
金永爵, 邵亭詩文稿, 활자본 6권3책, 규장각한국학연구원.
_____, 燕臺瓊瓜錄, 필사본 3책, 일본 천리도서관(今西龍 구장본).
靑松沈氏世譜, 필서체철활자 22권22책,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

2. 단행본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0.

3. 논문

- 김명호, 『동문환의 한객시존과 한중 문학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제26집, 한국한문학회, 2000, 391~418면.
_____, 『김영작의 燕行과 燕臺瓊瓜錄』, 『한문학보』 제19집, 우리한문학회, 2008, 989~1023면.
김영진, 『華東唱酬集』 연구,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305~338면.
_____, 『金照의 연행록 ‘觀海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제59집, 한국한문학회, 2015, 155~179면.
_____, 『한중 문학 교류 자료의 총집 華東唱酬集』, 『한문학논집』 제44집, 근역한문학회, 2016, 371~393면.
안대회, 『다산 제자 이강희의 이용후생학』, 『한국실학연구』 제10집, 한국실학학회, 2005, 289~321면.
임영길, 『19세기 前半 燕行錄의 특성과 朝·淸 文化 交流의 양상』,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2018.
천금매, 『金永爵과 한중 적독교류의 새 자료 中朝學士書翰錄』, 『동양고전연구』 제34집, 동양고전학회, 2009, 167~206면.
허 방, 『철종시대 燕行錄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6.

Research on 『Unyeonguaanrok(雲煙過眼錄)』 Yeonhaengrok(燕行錄)

Written by Sim Eungji(沈應之)

Kim, Young-jin

『*Unyeonguaanrok*』 is the first discovered manuscript Yeonhaengrok which consists of one volume. The author Sim Eungji's ja(字) is Myeonghag(鳴鶴) and ho(號) is Mugso(默所) · Dongdaelocho(東臺老樵). There described "Old Mugso wrote this." at the bottom of the first page of the body. Through the 『*Yeonsarok*(燕槎錄)』 of Park Yeongwon(朴永元)'s Chi'ing Travel poetry, it could be confirmed that Mugso was Sim Eungji's ho. Sim went to Chi'ing in 1846 with following Sim Huisun(沈熙淳), the secretary of the diplomatic mission. He was an insignificant literary writer who lived in Yagsan(藥山), Gimpo(金浦), Gyeonggi Province. It is said that he had a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but it is now in lost. 『*Unyeonguaanrok*』 is his only work. His friends were Sim Neungsug(沈能淑), Sim Huisun, Sim Yitaeg(沈履澤), and Park Seongseong(朴善性).

『*Unyeonguaanrok*』 is miscellany records of direct information and personal appearances in the order of travel, with a total of 156 items. It is not a diary, but rather a form of short sentences, which is described briefly without any small title. The most notable items are records related to the welfare of the Chi'ing dynasty such as carts, bricks, farming tools, and various cultures of Chi'ing dynasty such as castles, houses, and apparel system, and the friendship with Yang Shangwen(楊尙文), Yang Shangzhi(楊尙志), Li Jun(李鈞), Shen Henghui(沈亨惠), Zhang Mu(張穆), Fung Zhiyi(馮志沂), Zhao ZhenJha(趙振祚), and the information on the UK and opium etc. The literary expression describing the Liaodong desert(遼東廣野) and a careful examination of the Hoihua tree[槐] are also drawing attention. This book refer to various books published before, such as 『*Jungbongjil*(重峰集)』, 『*Baegsajil*(白沙集)』, 『*Dongsarok*(東槎錄)』 and especially on 『*Yeolkyulgi*(熱河日記)』. It deserved to be considered a brief and reliable historical portfolio to Chi'ing. It was enough to be judged a fine yeonhaengrok of 19th century.

keywords: Yeonhangrok(燕行錄) of 19th Century, *Uryeongwanrok*(雲煙過眼錄),
Miscellany Records, 156 Items, Sim Eungji(沈應之)

접수일자: 2018. 3. 31.

심사기간: 2018. 4. 1.~2018. 5. 10.

계재결정: 2018. 5. 10.